



배추포장화는 생산자·수집상의 마인드와 가격우대에서

한국농어민신문
편집국장 장용문

- 1. 농산물포장화 현황
- 2. 배추포장화 추진상 문제점
 - 1) 산지에서의 문제점
 - 2) 소비시장에서의 문제점
 - 3) 수송장비·파렛트의 문제점
- 3. 농산물포장 개선 방향
 - 1) 출하자·유통인들의 포장화 인식제고
 - 2) 포장출하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3) 포장출하 기반시설 구축
 - 4) 적재와 하역의 기계화 개선
- 4. 배추의 포장화 정착 방안

1. 농산물포장화 현황

농산물의 유통체계는 그 자체가 갖는 특성상 품질관리가 어렵고 생산·소비의 영세성으로 인한 유통경로 및 유통비용의 증가와 중계기구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유통시장 개방 및 유통경로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 현

실이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 규격포장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 규격포장화를 구심점으로 하는 생산자 조직의 육성 및 규격포장품의 대량출하체계 구축 △ 다변화된 유통업체의 수요변화에 대응한 물류표준화 △ 생산단계부터 포장농산물에 대한 라벨링 (labelling) 제도 확립 및 품질보증제 등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는 규격포장화가 그 핵심적 과제이다.

정부도 이러한 규격포장화의 중요성을 인식, 지난 84년부터 농산물 포장규격사업을 실시하고는 있다. 그러나 업·근채류는 기존의 상관행과 선별 및 포장의 어려움으로 포장출하가 미흡,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96년말 현재 참외 98.8%, 감자 98.4%, 토마토 93.3% 등으로 과채류를 포함한 과실류는 어느정도 포장화가 정착되고 있으나, 업·근채류는 배추 16.2%, 파 0.0%, 수박 4.4%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적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1백 40여개 품목중 배추(점유율 16.2%), 무(10.3%), 수박(4.5%), 파(3.5%) 등 포장화가 부진한 업·근채류가 높은 거래비중을 차지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2. 배추포장화 추진상 문제점

정부는 97년 1월부터 포장화가 부진한 품목을 대상으로 골판지에 포장하여 지정한 도매시장에 출하시 포장재비중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까지 포장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배추, 무 등 7개품목을 골판지상자에 포장, 가락, 구리, 안양도매 시장에 출하시 골판지 1매당 6백원 기준 3백50원을 출해주

에게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97~99년까지 3개년간 실시한 후, 그 성과를 보아가면서 타 도매 시장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의 실시결과 4월까지의 포장물량이 전체의 약

품목별 표준출하규격및 지원금액

(포장비 지원금액 : 매당)

품명	구분	1,100 파렛트 규격 (표준규격)		비규격 금액
		포장규격 (가로×세로×높이)	지원금액	
배추	골판지상자 4~6 kg(1~2포기)	366 × 275 × 200 ± 10	155원	145원
	골판지상자 8~12 kg(3~4포기)	550 × 366 × 200 ± 10	350원	330원
	골판지상자 15~20 kg(6~8포기)	550 × 366 × 350 ± 10	488원	447원
수박	골판지상자 8~10 kg(1개용)	275 × 275 × 280 ± 10	163원	150원
	골판지상자 15~20kg(2개용)	550 × 275 × 280 ± 10	275원	255원
	골판지상자 15~20 kg(3개용)	440 × 330 × 220 ± 10	264원	252원
	옥타곤상자 40~50	1,100 × 1,100 × 800 ± 10	5,321원	5,145원
양배추	골판지상자 8~12 kg	550 × 366 × 200 ± 10	350원	330원
	골판지상자 15~20 kg	550 × 366 × 350 ± 10	488원	447원
무	골판지상자 8~12 kg	550 × 366 × 200 ± 10	350원	330원
	골판지상자 15~20 kg	550 × 366 × 350 ± 10	488원	447원
파	골판지상자 5 kg	650 × 225 × 180 ± 10	155원	145원
	골판지상자 10 kg	650 × 450 × 160 ± 10	155원	145원
	골판지상자 (쪽파)10kg	440 × 330 × 300 ± 10	155원	145원
마늘	골판지상자 5 kg	275 × 220 × 200 ± 10	163원	148원
	골판지상자 10 kg	366 × 275 × 220 ± 10	244원	224원
	골판지상자 15 kg	440 × 330 × 230 ± 10	325원	314원
	골판지상자 20 kg	440 × 330 × 290 ± 10	327원	343원
양파	골판지상자 5 kg	275 × 220 × 200 ± 10	163원	148원
	골판지상자 10 kg	366 × 275 × 220 ± 10	244원	224원
	골판지상자 15 kg	440 × 330 × 230 ± 10	325원	314원
	골판지상자 20 kg	440 × 330 × 290 ± 10	327원	343원

※ 비규격 : 1,100mm 파렛트(표준규격)이외의 규격
 <자료 :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60%까지 차지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특히 포장배추는 품질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중도매인 및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았고 이에 따라 경락가격도 높게 형성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사업초기인 관계로 산지 및 도매 시장에 포장화 여건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데다, 출하자나 유통종사자들이 포장출하에 대한 인식이 미흡,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산지에서의 문제점

산지에서 배추의 포장 출하가 부진한 것은 기반시설인 집하장과 상차장비가 미비하고, 인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크기, 중량 등이 각각 달라 규격별로 포장하기가 어렵고 선별장이 아닌 노지에서 작업을 하게 되므로 골판지 포장이 매우 어려운 것이다.

또한 포장출하품의 선별 미흡과 품질 불량 그리고 외부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불일치 등으로 유통인 및 수요자로부터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도 배추 포장출하가 부진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골판지 배추는 견본경매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악용, 일부 출하자들이 고의적인 속박이 출하사례로 경락가격이 산물출하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출하자들이 선별작업단계에서 표준출하규격, 특히 골판지 포장재비 보조사업을 잘 모르는데다 특히 출하자는 포장출하시 자부담(42%)분과 추가인건비(1-2명정도)가 보장되어야 하나,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포장작업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포장출하를 하더라도 기존의 방법인 산물출하보다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인식, 배추 포장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소비지시장에서의 문제점

도매시장의 주요기능의 하나가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한 적정가격의 형성이다. 그러나 일부 중도매인들이 다듬기 마진이 적은 포장배추의 취급을 기피하여 경매에 응하지 않거나 담합하여 낮은 값으로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 포장출하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매시장내에 산물출하 제재, 포장품 우대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다듬기 금지 단속 소홀, 건조기 설치 등 종량

제부담 회피사례가 발생하는 등 산물출하 제재책 운영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도상 문제인 불공정거래 행위자(경매거부, 담합경매 등)에 대한 단속규정이 미흡, 불공정거래 행위가 상존하는 것도 도매시장에서 포장배추의 출하를 유도하는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소매단계에서는 도매가격 상승시 소매가격에는 즉각 반영되나 하락시에는 소매상이 이미 확보한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어 포장배추의 소비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선도유지기간이 매우 짧은 배추의 경우 소매단계에서 품질저하, 판매잔량 등을 고려하여 소매값이 결정되는데 소비자는 산지가격과 단순비교,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구매를 기피하는 것이다.

3) 수송장비·파렛트의 문제점

도매시장을 비롯한 소비지 유통단계에서의 하역기계화 부진도 포장배추 출하의 큰 장애요인이다.

현재 공영도매시장에서의 하역기계화율은 약 3%로 극히 미흡한 실정이고 소비지의 유통업체들도 산지 직거래율을 늘리면서 유통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는 있으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내 하역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여 배추의 경우 손수레가 주하역장비이다. 실제 94년 4월현재 가락시장 청과법인의 경우 지게차 3대, 전동차 50대(농협공판장), 대차 61대, 손수레 8백79대, 파렛트 2천9백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하역기계화의 부진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하역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격포장화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파렛트에 의한 적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배추 포장과 하역에 있어 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파렛트의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1,100×1,100mm 규격의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의 사용율은 약 10%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1,050×1,050mm규격의 비규격 파렛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만 5만여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5톤트럭 전체보유량의 90%가 규격파렛트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차량은 표준파렛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광폭으로 개조해야 하나 소요비용이 1대당 약 80여만원이 들어 이를 기피하고 있다.

3 농산물포장 개선 방안

농산물 포장화의 목적은 △ 품질유지(선도) △ 외형유지(압상방지) △ 상품화 촉진(부가가치 창출) △ 거래촉진(표준화, 등급화, 규격화) △경매신속화(건본경매 촉진) △ 소비자의 선택과 선호(신뢰구축) △ 하역의 기계화(상·하차의 편리성 제고) 등에 있다.

따라서 농산물 포장화가 조기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지에서 생산자, 수집상 등 출하자들의 포장화에 대한 마인드가 제고되어야 하고 포장화 조성을 위해 포장재 등 물리적 인프라 재정비와 함께 포장출하품의 포상적 우대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1) 출하자·유통인들의 포장화 인식 제고

농민들과 유통인들의 물류표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산지 유통시설과 장비 등이 물류표준화에 맞지 않아 관행적 상행위에 의지하고 있다는 현실이 농산물 포장화상 큰 걸림돌이다.

따라서 농민이나 수집상, 그리고 유통인들을 대상으로 포장화의 당위성과 유리점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출하주에 대해서는 출하비용 분석과 경락가격 비교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특히 유통시장 개방과 신 유통체제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 포장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2) 포장 출하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포장출하를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포장품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상장출하시 우선 판매와 경매시 최적매장 및 최적시간대 배정, 상장수수료 경감, 하역료 인하, 쓰레기 유발부담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산물출하시에는 쓰레기 유발부담금 부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 도매시장내 다듬기 단속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포장출하자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포장출하품의 제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가격형성이다. 따라서, 포장출하품 경매에 대한 중도매인들의 관심제고와 비용보상적 가격형성 유인대책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중도매인들의 담합경매, 경매불참 등의 부정행

위에 대한 처벌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농안법 등 관련규정의 보완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3) 포장출하 기반시설 구축

배추 등 채소류는 생물적 특성을 갖고 있어 부패가 쉽고 보관이 어려워 상품성 유지가 곤란하므로, 채소류 주산단지 에 저온저장고 건설 등을 지원하고 운송중 상품성 유지를 위한 냉장탑차의 구입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 위주로 포장출하 및 공동출하를 유도해 나가되, 포장화가 안되는 품목위주로 정부의 정책자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4) 적재와 하역의 기계화 개선

하역업무를 기계화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파렛트에 의한 적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파렛트의 보급은 농·수산용의 경우 전체사용량의 1.7%밖에 안되며 개수도 1천2백여개에 불과해 기계화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파렛트의 보급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나 현재 표준파렛트의 규격은 농산물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배추의 예를 보더라도 정부표준 파렛트의 길이가 2,200mm(1,100×2열)이나, 수송효율이 높은 5톤의 차량적재함은 2,120mm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5톤차량을 표준출하 파렛트에 맞도록 개조할 수 있게 정부가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파렛트 자체를 수송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차량의 제원에 맞게 표준화해야 할 것이다.

4. 배추의 포장화 정책 방안

포장배추는 일단 물류개선측면과 소비자들의 반응에 있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난해 8월 포장출하가 정착되지 않은 고랭지배추를 대상으로 골판지상자로 포장개선 실증사업을 실시한 결과 1천6백포기 기준 포장배추가 산물배추보다 총 1백60분 정도의 물류시간이 절약되며, 각 유통단계별 소요시간을 보더라도 산물배추보다는 포장배추의 물류시간이 40-60분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포장배추의 경우 산지에서 박스포장작업이 추가되지만, 차량적재시 산물배추보다 작업이 효율적이

고 작업 기계화의 연계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반응은 향후 포장배추를 구입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69%수준으로 나타났고, 포장된 배추의 균일정도는 60%이상이 보통이거나, 균일하다는 답변을 했다. 특히 가격면에서는 29%정도가 비싸다고 답했고 포장·선별 추가비용 지불의향을 표시한 소비자가 20%수준에 그쳤으나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추가비용 지불의사표시가 20%라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아니더라도 배추의 포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산지에서 엄격한 선별 및 포장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유통과정에서 2·3차 다듬기 등의 재작업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유통비용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또한, 산지에서 수확한 배추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즉 산지에서 수확된 양질의 배추는 골판지 박스로 포장출하하고, 중·하품은 인근의 가공공장으로 출하하는 등의 산지 수확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가의 배추 포장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포장재비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배추포장재비 5천2백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3개 도매시장에 국한되어 있어 전국적인 배추 포장화 정착이 요원한 실정이다. 따라서 포장재비 지원을 전국 도매시장으로 확대함은 물론 최근 농산물 유통의 주요거점으로 부각되는 직거래형태의 조직인 물류센터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97년 1월부터 실시된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의 실시 결과 어느정도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은 당초 예상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포장화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이나 조직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자율적인 정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시장내 산물출하품에 대해서는 반입을 억제하거나 또는 아예 반입을 금지시키는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無限競爭時代의 골板紙包裝企業
生殘·經營革新戰略 指針書

〈産業研究院 發行〉

2000年代 골板紙包裝産業의 發展戰略

輕工業室長 經濟學博士 金 浚 炫
副研究委員 李 在 德 共著
研究員 權 烈 浩

高級米色模造
統計·圖表 總網羅
206P. 普及價 8,000원

購讀申請問議: 서울瑞草區方背洞1669 성산B/D 6F
韓國 골板紙包裝工業協同組合
TEL : (02) 594-0381~4
FAX : (02) 594-1310